우선시(優先視)

(요6:41~51)

41.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선시(優先視)>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선시(優先視), 우선적으로 본다.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보거나 일차적으로 여긴다, 이걸 우선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보거나, 일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이제 이게 우선시 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시라고 하는 뜻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 말씀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주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45절에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믿는 것이고 또, 51절에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변하십니까?
'세상을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틀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로 가는 거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대신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건데, 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아버지를 대면해서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불식간이지마는 아버지께 이끌리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예수님께로 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예요.
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몸이 예수님께 갈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가는 건데, 마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딴 생각'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한 학생이 창문 밖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분필조각을 싹 던지면서 '야! 개똥아 너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교실이라는 현장에 있는데 정신이 딴 데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딴 생각을 하는데, 그 딴 생각이 어디로 가 있나 봤더니 예수님께 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 사업에 쏟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현장에서, 마음이 어디 가 있나 봤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가는 거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일들이 있는 삶의 현장, 현장마다에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족에게 마음이 뺏겨지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남편을 보니까. '아니 당신 지금 나하고 얘기하면서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봤더니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예수님께 가는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삶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동안, 직장에 있는데, 가정에 있는데, 사업현장에 있는데, 건강 때문에 지금 병원에 진찰 받으러 왔는데,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께 가있는 것 이게 진짜 가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업현장에서는 사업에 가있고, 병원에서는 건강에 가있고, 아내와 얘기할 때는 아내한테 가 있고, 다~ 가있으면 우리 마음이 언제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께 가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건 가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시간을 만들어 기도를 하는 이유도, 다른 데 가서조차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떤 경우에요?
사업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릅

니다.
이것은 마음이 사업에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불러 내 삶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문제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게로 오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은 건강에게로 가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내 마음이 자식에게 가있으면 자식을 믿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있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업현장에 있든지,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있든지, 가정에 와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거라는 얘깁니다.
내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 마음은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게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내 귀에 어떤 문제가 들리더라도 내 마음은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게 예수님께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자신을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은 언제 먹습니까? 늘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 앞에 놓여 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십자가는 현재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선시하여 마음이 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됐네! 내가 뭐 사업현장에서 예수님을 먼저 보면 되잖아! 가정에서도 우선시하여 보면 되잖아!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생활의 역사적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 사업 때문에 한 참 바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선시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가정에서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될 때, 예수님을 우선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이 탁 생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문제를 2차 3차로 뒤로 미루어 놓고, 사업상의 문제를 2차 3차의 문제로 뒤로 미루고 지금은 온통 마음이 다 딴 데 가있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영~ 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그 딴 생각이 예수님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나무라자고 이런 말씀을 들추어내는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중차대한 일들을 다 모아놔 봅니다.

뭐 고구려가 망했다, 백제가 망했다, 고구려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고구려가 망할 때 고구려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중대함, 백제가 망할 때 백제 사람들이 느끼는,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설 때, 통일신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 나라의 흥망에 대한 중대함, 이 성계가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 결심의 중대함, 이런 식으로 모~든 중대함을 다 모아놔 봅니다.

당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중요함을 그 지수를 그대로 갖고, 다 모아놓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 개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같이 끼워놓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된다, 나한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해있다,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슨 수로 우선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어디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면서, 그걸 우선시해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빠져있고 내 건강에 레드신호가 왔는데도, 건강문제를 2차 3차로 뒤로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온갖 중요한 일, 1차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리 끼어 있어도 우선시할 수 없는데, 딱~ 한 분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아버지 말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벨론의 망함보다, 유대나라의 망함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내 사업보다, 내 건강보다, 내 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왜 하나님아버지께는 십자가 사건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외아들이시니까.
자! 7살짜리 외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다고 하는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외아들의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엄마에게, 더 우선적인 사건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여보, 여보 큰일 났어!' 해도 '여보 잠깐만 우리 아들 팔 부러졌어' 하고 끊어버리고, 남편의 큰일 난 문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엄마 잠깐만, 잠깐만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달려갑니다.
아들의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의 마음에 더 우선적인 사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아버지께 영원하신 외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놔두고, 이 낮고 낮은 곳에 발가벗겨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시는데 그 고통을 다~ 흡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니까… 고통이 느껴져야 사해지지요.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으로 찔림 받게 하시고.
이 사건,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우선적인 사건이 엄마와 아빠에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업이 급해도 하나님아버지께는 외아들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보다 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암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아버지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보다 더 급한 사건은 없고, 그 사건은 영원한 현재에요, 지금.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얘기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옮겨져야 가능합니다.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이 옮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업보다, 내 건강보다, 내 자녀문제보다 우선시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꽝 부딪칩니다.
그때, 내가 아는 아줌마입니다.
'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아 우리 아들 팔이 부러졌대요!' 하고 막 뛰어가는데 '아이고, 저런! 저런 쯧쯧!' 하지만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심겨집니까? 내 아들의 팔이 부러져봐야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옮겨지기 전에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왜? 전부 각자의 문제가 바쁘니까, 각자의 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만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우선시할 것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지구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해와 달과 은하계와 태양계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넓고 넓은 피조의 세계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우선시해야 됩니다.
사업이 바쁘지만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오지 않아서, 내가 자꾸 바쁜 사업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건강문제에 빼앗깁니다. 자녀문제에 빼앗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선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마음을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버지의 외아들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옮겨진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선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문제 급하지만 제쳐놓고, 건강문제 급하지만 제쳐놓고, 자식문제 급하지만 제쳐놓고,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들려져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때,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 아니면 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을 우선시하느라고 밀쳐둔 사업의 문제, 주님을 우선시하느라고 밀

쳐둔 건강의 문제, 주님을 우선시하느라고 밀쳐둔 내 자녀와 가정의 문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죽어가는 것에서 마음을 못 떼시는 그 아버지께서, 온통 십자가에 다 마음이 다 머물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그 십자가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걸 보실 때, 아버지께는 이 세상에서 내게 줘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내게서 이루어져서 아까울 일이 없습니다.
내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똑같이 나와 같은 입장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들 됨의 권세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업문제, 건강문제 이런 것은 우리 마음에서 다 없애버리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선시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건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은 사건이에요.
내 마음이 죽은 사건으로 떨궈두고, 계속해서 영원히 현재의 사건인,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현재의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우선시하는 하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저 생겨먹은 대로라면 사업이 급하지 주님의 십자가가 급한 일은 아닙니다.
내 건강문제가 우선시 되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선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선시하느라 밀쳐둔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선시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